

美 “4월6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 중단”

일주일 '외교의 시간' 확보... “이란 정부 요청 반영” 강조 중전 압박 속 군사 옵션 병행... “타결 vs 연막” 해석 분분

이란 발전소 폭격을 위협하다 협상에 돌입했다며 돌연 유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7일간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새로 설정된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6일까지다. 공격 유예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차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협상을 통해 중전을 모색할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초 설정했던 4~6주의 전쟁 기간 내에 이란에 협의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오후 4

시 11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뉴스 매체와 다른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27일까지 5일간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합의에 절실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를 열흘간 연장한 것은 일단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고, 협상 국면 내지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내놓은 중전안의 간극이 큰 탓에 닷새만에 합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며 합의 타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월6일'이라는 시점은 개전 6주 차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거론한 전쟁 기간인 4~6주의 종료 시기에 가까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 이란 전쟁에 애초 설정한 기간에 맞춰 끝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한 바 있다. 개전 후 6주면 4월 중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전'을 구상한다는 징후는 미중정상회담 일정을 5월14~15일로 다시 잡아 발표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란 전쟁 지휘를 위해 일단 미원전 방중 일정을 확정해 다시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당초 설정했던 기한을 지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대상 공격의 추가 유예가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지상전 등 결정적 공격을 가하기 앞서 '연막 작전'을 쓰는 것일 수 있다는 이란 측 의구심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가 현격하고, 상호 신뢰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열흘의 협상 시간을 더한 것이 협상 타결에 청신호를 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상당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대한 준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후의 일격'을 위한 여러 옵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선 너무 넓은 이스라엘 참모총장마저 “자멸” 우려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과 끊임없는 전선 확대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군 수뇌부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CNN방송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 채널 13의 보도에 따르면 애달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전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 회의에 참석해 “IDF가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자미르 총장의 발언은 이란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군이 여러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전쟁은 물론 이란의 대리 세력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레바논 남부에서도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나 IDF 간 소규모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시리아, 서안 지구에도 군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IDF 병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DF 대변인은 이날 군 병력이 1만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라엘 정치권도 정부의 무리한 전쟁 확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야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야당은 그간 전쟁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보조를 맞췄지만, 이날은 공개적으로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공격 목표를 정권 붕괴 대신 군사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이란의 국방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격 목표 전환은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종식을 지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이번 주 테헤란의 무기 생산 시설, 이스파한 내 폭탄 공장과 잠수함 제조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WSJ은 분석했다.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논의... 韓도 참여

佛 주재 화상회의 개최... 진영승 합참의장 참석 적대 행위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 대응 논의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중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6일(현지 시간) 화상 회의를 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각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이 전략적 지역의 해상 항해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날 회의가 “역내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다”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투가 중단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 재개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화상 회의에는 한국군을 대표해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번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가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기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으며, 구체적인 군사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없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의 하에 정부차원의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프랑스 등 유럽·아시아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맹국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동 전쟁이나 폭격 상황 속에서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국들은 휴전이 이뤄져야 해협 내

선박 호위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 언론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노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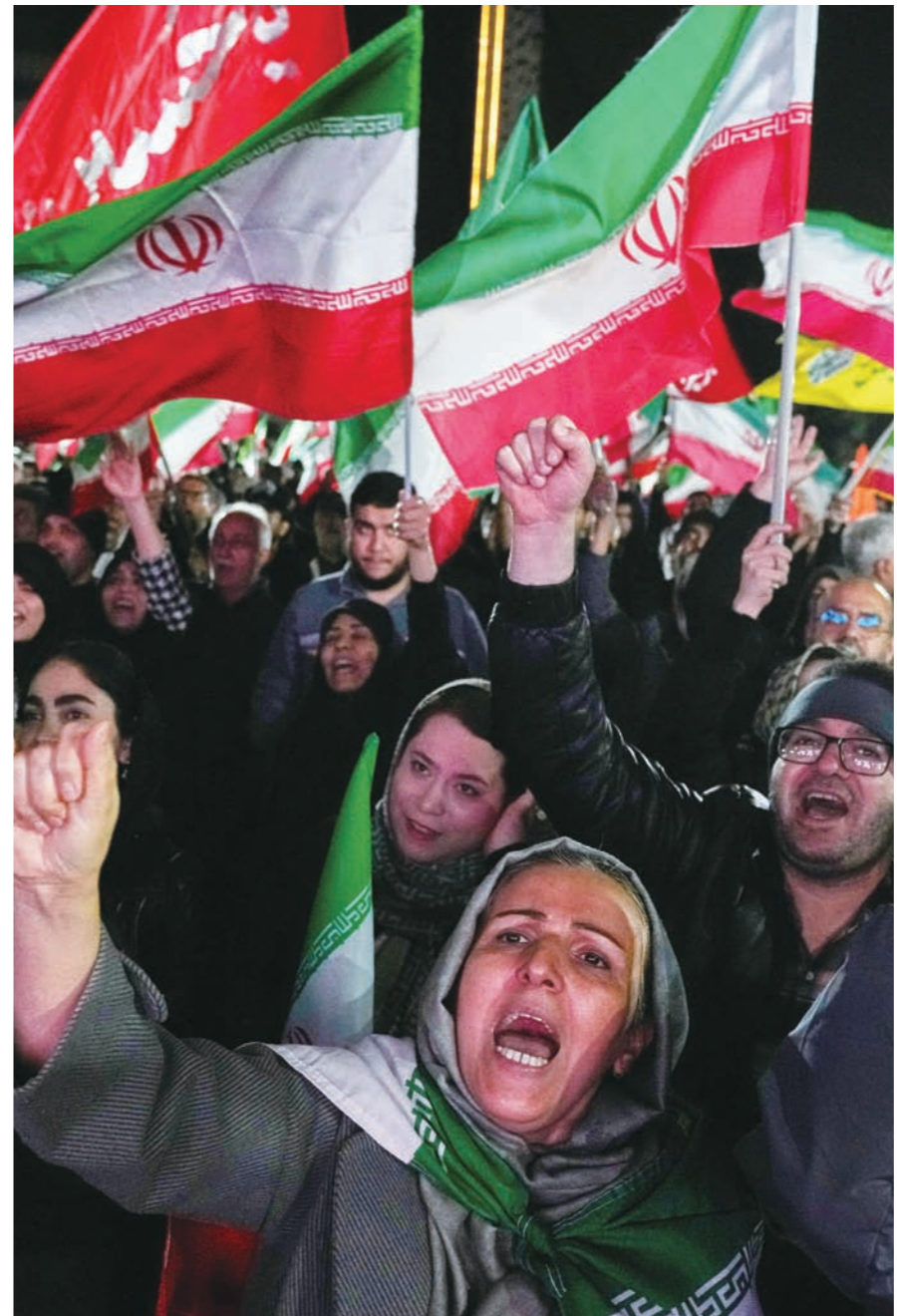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대규모 교전이 끝난 뒤 상황이 안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두 나라가 사전 대비 작업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프랑스 합참의장이 개최한 다국적군 화상회의도 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군 수장들 회의와 별도로 프랑스 해군 수장은 최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여러 국가의 해군 수장과 중동 상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니콜라 보주르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중동, 근동 지역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외국 동료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주르 참모총장은 “바다는 세계 경제와 지역 안정을 위한 생명선인 만큼 우리는 항해의 자유 및 해양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25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서부의 한 광장에서 친정부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이란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연이 준 선물 정선 약도라지!

국내산 청정 강원도 약도라지 100%

자연에서 나온 약도라지를 정성을 다해 다듬은 뒤, 저온에서 72시간 추출하여 한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웃이랑에서 정성과 고민을 다해 만든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은 강원도 산 속 깊은 곳의 순수한 자연에서 자란 자연산 약도라지만을 사용하여 제대로 만든 제품입니다.

無 색소!

無 설탕!

無 첨가제!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좋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 약도라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딛고 자란 3년 이상된 약도라지만을 엄선, 직접 슬라이스하여 통째로 72시간동안 진하게 달여 완성시켰습니다. 게다가 색소, 방부제 첨가가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도라지 특유의 씹싸름한 맛을 줄이기 위해 국내산 쌀조청을 일부 첨가하여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을 순하게 배합하였습니다. 거기에 합성 감미료, 착향료, 설탕, 색소가 일절 첨부되지 않은 원료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진한 약도라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



無 색소! 無 설탕! 無 첨가제!
오직 도라지만을 통째로 넣어 맛이 깊고 진합니다!



자연순 정선약도라지 당도 측정 Brix 77.8%
순수한 약도라지의 맛!



황사,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걱정될 때!

정선 약도라지 진액과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평소 목이 자주 칼칼거리어서 불편하신 분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황사, 미세먼지, 배기가스, 흡연 등 나쁜 공기에 시달리시는 분
- 선생님, 학원강사 등 목을 많이 쓰시는 분

· 제조원 :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 충남 금산군 금산을 하영저장 29-16

· 유통전문매점 : (여)웃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1, 남신빌딩 4F

주문전화 : 1588-6232 **입금계좌 : 농협 301-0280-1454-01** **주식회사 웃가네**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